

- 주요 뉴스: 미국 1/4분기 성장률, 역성장 기록. 양호한 소비 등은 긍정적
 - ECB 부총재,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역내 성장률 둔화될 가능성
 - 일본은행, 기준금리 동결. 현행 완화정책 유지. 엔화 가치는 20년 만에 최저
 - OPEC+, 6월에도 완만한 증산 기조를 지속할 전망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양호한 기업실적과 고강도 통화긴축 전망 등이 영향

주가 상승[+2.5%], 달러화 강세[+0.7%], 금리 하락[-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Meta의 실적 호조 등으로 기술주 중심 매수세 강화
유로 Stoxx600지수는 자동차, 여행주 강세 등으로 0.6%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지속적인 금리인상 예상 등으로 '03년 이후 최고 수준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6%, 1.9%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4분기 경제성장률 부진 등이 배경
독일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ECB 통화긴축 가능성 등으로 10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272.1원, -0.4원) 포함, 한국 CDS 상승

		4/28일	4/27일	전일대비			4/28일	4/2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287.5	4,184.0	2.47%	국채 금리 10y	미국	2.82%	2.83%	-1bp
	유럽	447.07	444.31	0.62%		독일	0.90%	0.80%	10bp
	중국	2,975.5	2,958.3	0.58%	CDS 5y	한국	40bp	39bp	1bp
	일본	26,848	26,387	1.75%		중국	78bp	80bp	-2bp
	한국	2,667.5	2,639.1	1.08%	위험 지표	EMBI+	-	405	-
환율	달러지수	103.66	102.95	0.69%		VIX	29.99	31.60	-5.09%
	유로화	1.0499	1.0557	-0.55%		WTI유	105.36	102.02	3.27%
	엔화	130.85	128.43	-1.85%	원자재	구리	441.4	445.7	-0.96%
	위안화	6.6266	6.5606	-1.00%		금	1,894.5	1,886.1	0.44%
	원화	1,272.5	1,265.2	-0.5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4분기 성장률, 역성장 기록. 양호한 소비 증가 등은 긍정적

- 1/4분기 성장률(전기비연율)은 -1.4%로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 이는 '21년 4/4분기(6.9%) 대비 크게 둔화된 것으로, 재고(5.32%p→0.84%p) 및 무역부문(-0.23%p→3.20%p) 기여도의 감소 등이 주요 원인. 정부지출도 감소
- 그러나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부문(1.76%p→1.83%p) 기여도가 증가했고, 투자부문(5.82%p→0.43%p) 기여도도 여전히 플러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성장률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 이번 결과를 고려 시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가 기존에 비해 크게 변하지는 않을 전망. 오히려 소비부문 성장률이 3.8%로 연준이 예상하는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치(1.8%)를 상회하고 있어, 경제성장 속도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소지
- Grant Thornton의 Diane Swonk는 경제가 상당한 회복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 BMO Capital Market의 Sal Guatieri도 금리상승 여건에서 성장 지속 가능성을 확인했기에 연준은 공격적인 통화긴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일부에서는 3월 소비자물가 연간 상승률이 8.5%에 이르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이 악화되면서 전반적인 소비도 둔화될 수 있기 때문. 기업 입장에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수익성을 저해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재무장관, 인플레이션 논란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지지

- 옐런 장관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완만한 경제성장 유지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 한편 보다 효과적인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상황에 따라 경기 부양책의 규모와 강도를 자동 조절하는 안정화 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

■ 독일 4월 소비자물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이 원인

-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7.8% 올라 전월(7.6%) 및 예상치(7.6%) 상회.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큰 폭 상승 등에 기인. LBBW의 Elmar Voelker은 ECB가 완화정책을 포기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발생했다고 언급

■ ECB 부총재,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역내 성장률 둔화될 가능성

- 데 권도스 부총재는 인플레이션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 다만 인플레이션 기대를 측정하는 다수의 지표들은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
- 이탈리아 중앙은행 비스코 총재는 ECB의 금리인상 시행 시기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중요한 것은 점진적 형태의 진행 여부라고 강조. 한편 미국(양호한 수요)과 유럽(공급 차질)의 인플레이션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지적

■ 일본은행, 기준금리 동결. 현행 완화정책 유지. 엔화 가치는 20년 만에 최저

- 10년물 국채수익률 0.25% 이내 제어를 위해 무제한의 국채 매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또한 장단기 금리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낮게 지속되기를 기대
- 이번 결과로 엔화 가치는 달러당 130엔을 넘어서며 20년 만에 최저 수준.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의 Daguchi Harumi는 일본은행의 완화정책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확인되면서, 투자자들이 이에 반응했다고 평가

■ OPEC+, 6월에도 완만한 증산 기조를 지속할 전망

- 관계자들에 따르면, 5/8일 예정된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현행 증산 경로를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다만 최근 실제 생산량이 당초 계획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공급량은 불확실성이 높은 편

■ 호주 총리, 고물가와 금리인상 가능성이 경제에 위협 요인

- 모리슨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봉쇄 조치로 인한 공급망 차질 등이 국내물가의 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 한편 시장에서는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호주중앙은행이 5월 혹은 6월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4/28 현지시각 기준)

- 미국 4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만건): 18, 전주(18.5), 예상치(18)

■ 주요 경제 이벤트(4/29 현지시각 기준)

- 미국 4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 유로존 1/4분기 성장률 및 4월 소비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인플레이션 해법, 세계경제의 문제가 될 우려 - The New York Times**
(America's Inflation Solution Could Become the World's Problem)
 - 연준이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시행. 그러나 과거 사례를 고려 시 이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닌 신흥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은 1920년대 대공황과 1980년대 중남미 외채위기를 유발
 - '13년에는 연준 버냉키 의장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발언 이후 차입비용 상승과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신흥국의 경제 불안이 증폭. 한편, IMF 특별인출권의 효과적 사용 등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
- **일본 엔화 약세, 일본당국의 정책적 변화 부재 속 지속 가능성 - 블룸버그**
(Yen's Historic Fall Signals Rewrite of Global Currency Playbook)
 - 일본 엔화가치가 최근 20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 이는 일본과 주요국과의 금리 차이 및 일본경제의 성장둔화에 기인. 일본은 최근 8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실질 GDP 역시 금년 2% 증가한 이후 '24년까지 감소 예상
 - 일본경제의 둔화는 해외자금 유입 감소 및 국내기업 투자 위축을 초래할 소지. 그러나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는 완화적 통화정책 입장을 고수. 달러화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엔화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 당국의 유의미한 정책전환이 요구
-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 제재, 관세 등 실효성 높은 방안이 필요 - Financial Times**
(How to be smart about Russian energy sanctions)
- **중국 위안화 약세, '15년 위안화 가치 폭락 시기의 자본유출 재연될 소지 - 블룸버그**
(China's Sudden Currency Plunge Raises Risk of a 2015-Style Panic)
- **유럽 은행권, 레버리지론 디폴트 증가 가능성에 직면 - WSJ**
(A Big Risk Hanging Over European Banks: Leveraged Loans)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